

제주해군기지 강행 위해...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정황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 회의록서 드러나
“정부가 시뮬레이션 안하게 데이터 만들어달라해”

정부가 군항으로 설계한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민간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자료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정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2월 4차례 가동했던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의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술검증위는 국회(여야), 정

부, 제주도가 추천한 6인으로 구성됐다.

2월14일 4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라고 말해,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요구했음을 내비쳤다.

앞서 1월26일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애초부터 해군기지만 설계했고, 민항에 맞는 설계 변경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1월30일 2차 회의에서 민항에 맞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 정부 약속이 사실상 거짓이었



음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한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왜 화끈하게 15만톤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톤을 갖다가 2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설계 검토 없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을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건설을) 공약 해버렸다.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아마 15만(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논의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위원은 “크루즈 부두를 하면 거기에 맞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역 시설이다. ... 그런데 그 배(15만 크루즈선)가 들어오는데 바뀐 게 (설계) 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 ... 왜냐하면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기술검증위원들에게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하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전

제조건을 내건 정황도 나타났다. 한 참석자는 “여기(기술검증위) 구성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지금 정부 측에서 (시뮬레이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총리실에) 건의하기는 하는데, 공사기간에 지장을 안 주는 게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고 말했다.

기술검증위원회는 전준수 서강대 교수(위원장)와 박진수·김세원·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환 대영엔지니어링 전문 등 6명이고, 간사는 인석규 총리실 제주

도정책관이었다.

▶2면으로 이어짐
제주/허효준 기자 hjoon@hani.co.kr



정부, 제주 해군기지 검증자료 조작 정황 드러나!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은 제주도민 입 막음 용!

한겨레 2012년 10월 11일자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민간 크루즈선박이 입출항 할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설계 변경이나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위원들에게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 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10월 12일 한겨레 보도)

우근민 지사는 데이타까지 조작하며 제주도민 사기친 정부에 맞서 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하라!

파괴된 구럼비 바위는 전체 면적의 16%, 공사 진행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해군기지 예산(2009억원)을 삭감하고 해군기지를 백지화 할 평화대통령을 뽑아
강정과 한반도 평화를 지킵시다.



제주 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원 동땅 삭감시켜요~

-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와 2009명 평화행동 인증샷 참여하기 (10월 29일~)
- 한겨레 전면 광고 참여하기 : 예산 삭감! 공사 중단! 평화대통령 원해요! (1차 11월 말, 2차 12월 초)

강정에서 서울까지 생명평화대행진
기간 : 2012년 10월 5일 ~ 11월 3일, 10.6(광주), 10.7(순천), 10.10(대전), 10.17(부산), 10.21(군산), 10.28(평택), 11.1(인천), 11.3(서울시청)

미군기지 노릇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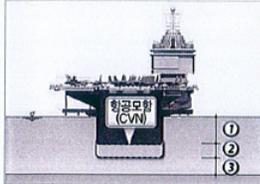
제주 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미국 핵항공모함의 안정적 계류를 위해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CNFK)의 요구 기준에 따라 방파제 내측 수심을 17.40m로 설계 (대한민국 해군, 08-301-1 시설공사 7편 조사 및 실험보고서)
- 미 대형 핵잠수함(흘수 9.5m 안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잠수함 계류부두의 수심을 12m로 설계

제3편 기본설계 검토

1 부두 계획수심



설계기준 고려	경험식 적용
① 만재흘수 D=11.5m ② 항내파랑의 영향=1.0m ③ 대기압 영향=0.5m ∴ 부두 계획수심 = 11.5+1.0+0.5=13.0m 이상	•Swell 등을 고려하여 만재흘수의 15% 고려(PORT DESIGN, p52) •부두 계획수심 = D×1.15 = 14.95m 이상

설계적용 :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

2 선석길이 검토

-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항내 선박 선회 구역) 지름(520m)도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미 항공모함 CVN-65급 길이(342.3m)의 약 1.5배로 설계 (제주의소리, 2011.9.23)

국방군사시설기준 - 선회장 적용기준

구분	조건	선회장 소요직경		
		대형선 (KDX-III)	중형선 (PCC)	항공모함 (CVA)
자력에 의한 회두	3L	480m	270m	-
예인선에 의한 회두	2L	-	-	-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1.5L	-	-	520m

(L=선박 전체의 길이, 전장이라고도 함)

- “제주 해군기지 서방파제에는 15만GT급 여객선이, 남방파제에는 CVN-65급 항공모함이 입·출항 및 접·이안을 할 예정” (대한민국 해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II)(1공구), 제5편 선박조종시물레이션)

제5편 선박조종 시물레이션

1.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본 과업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표 1.2.1>과 같음.
 <표 1.2.1>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과업 내용	세부 내용	비고
대상 해역	• 제주 해군기지 해역 및 그 접근항로 일원	
대상 선박	• 15만 GT급 여객선 및 CVN 65급 항공모함	
	• 선행 용역자료 조사 및 분석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가 드나들면 제주도과 한반도는 동북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안보불안뿐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전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건설하여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제주해군기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